

보도시점 2023. 12. 29.(금) 조간 배포 2023. 12. 28.(목) 09:00

[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 돋보기⑧]

올해 서민·취약계층에게 정책서민금융 10.7조원 지원

- '23년 정책금융 지원실적은 '22년 9.8조원 대비 9.3%(+ 0.9조원) 증가한 10.7조원(잠정)으로 역대 최대 수준

금융위원회는 '23년에 정책서민금융 10.7조원(잠정)을 공급하여 저소득·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. 이는 작년 대비 9.3%(0.9조원)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.

*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(조원) : ('20) 8.9 → ('21) 8.7 → ('22) 9.8 → ('23) 10.7^{잠정}

전년 공급실적 대비 햇살론뱅크(+ 1,139억원, 9.2%), 최저신용자 특례보증(+ 1,948억원, + 194.4%), 햇살론카드(+ 78억원, 28.7%), 새희망홀씨(+ 10,309억원, 43.9%), 사업자햇살론(+ 98억원, 7.5%) 등이 증가하였다.

'23년에는 금융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('23.3.27)하였고,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규모를 1,400억원 확대*하는 한편, 햇살론카드 성실상환자에게는 보증한도를 증액**했다. 특히,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금융기관 11곳에서 모두 출시하였다.

* '23년도 공급계획 : (당초 계획) 1,400억원 → (확대) 2,800억원

** 햇살론카드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최대한도 200만원 → 300만원으로 확대

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저소득·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, 이용자가 지원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의 개선점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.

< '23년 정책서민금융 지원현황(잠정) (단위 : 억원) >

구분	'22년 공급실적(A)	'23년 잠정 공급실적(B)	증감(B-A)	증감율 (B-A/A)
근로자햇살론	38,285	34,200	△4,085	△10.7% ¹⁾
햇살론뱅크	12,361	13,500	1,139	9.2%
햇살론15	14,386	13,000	△1,386	△9.6% ²⁾
최저신용자 특례보증	1,002	2,950	1,948	194.4%
소액생계비대출	-	960	960	신규
햇살론유스	3,094	3,002	△92	△3.0%
햇살론카드	272	350	78	28.7%
미소금융	3,469	3,609	140	4.0%
새희망홀씨	23,478	33,787	10,309	43.9%
사업자햇살론	1,302	1,400	98	7.5%
합 계	97,649	106,758	9,109	9.3%

* 1) '22년에는 당초 공급계획 이후 기재부 복권기금 추가지원(300억원)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'22년과 비슷한 공급규모 유지

2) 국민행복기금 재원여력을 감안하여 22년보다 다소 감소(△9.6%)하였으나, 필요충분한 규모의 공급은 유지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	책임자	과 장	정선인 (02-2100-2610)
		담당자	사무관	임두봉 (02-2100-2614)
<공동>	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	책임자	본부장	김진휘 (02-2128-8080)
		담당자	부 장	김금석 (02-2128-8185)
	금융감독원 포용금융실	책임자	팀 장	지행호 (02-3145-8412)
		담당자	수석조사역	이선우 (02-3145-8405)